



트러스트자산운용
04779 서울시 성동구 독성로1길 10
T 02 6308 0500 F 02 6308 0688
www.trustonasst.com

2024년 3월 20일

수 신 : 태광산업(주) 이사회 및 태광산업(주) 주주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310(장충동2가)
참 조 : 태광산업(주) ESG 지원팀
발 신 : 트러스트자산운용(주)
제 목 :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알리는 공개주주서한

안녕하십니까 태광산업의 2대주주 트러스트자산운용입니다.

당사는 스튜어드십코드를 준수하는 기관투자자로서 태광산업에 경영참여를 선언하고 2024년 주주총회를 통해 소수주주의 추천을 받아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경영진 및 이사회와 태광산업의 기업가치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태광산업은 순자산가치 대비 주주가치가 매우 낮고 (이른바 저 PBR), 자산의 많은 부분이 비영업용이며 보유 자사주 비율도 약 25%에 달할 정도로 높습니다. 그만큼 기업가치제고를 통해 주주가치가 올라갈 여지가 매우 많은 기업입니다.

단적으로 최근 태광산업은 보유한 SK 브로드밴드 주식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약 9,000억원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일부 보유 자산의 매각만으로 현재 시가총액인 6,260억¹원의 1.5배에 달하는 9,000억의 현금이 유입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태광산업 경영진 및 이사회와 기업가치제고계획을 고민했고, PBR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자산매각 대금의 일부를 자사주 매입, 소각 형태로 주주환원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중장기 배당정책의 수립에 대해 논의하였고, 25%나 보유한 자사주 비율을 낮추며, 임원의 보수와 주주가치를 연동할

¹ 자사주 차감 시가총액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주주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이 24년 11월 13일에 발표된 SK 브로드밴드 매각 공시에 첨부된 이사회 의사록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듯이 매각대금 9,000억 중 일부를 주주환원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이사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이사회 내 지배구조를 다루는 전문 소위원회를 거치며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특히 태광산업과 당사는 SK 브로드밴드의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한 자기주식의 매입 및 소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 및 매입금액을 특정 짓고,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마치는 등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25%의 자사주에 대해서도 경영진 및 이사회는 주가연동보상제의 도입(RSU), 소각을 통한 기업가치제고 등 다양하게 논의하고, 이러한 논의의 결론을 최근 도입된 자기주식 보유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시장에 공유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28일 대표이사의 사임 이후 모든 관련 진행사항은 중단되고 표류되었습니다. 법적 검토 이후 3월 초에 논의하자던 간담회는 열리지 않게 되었고, 유의미한 자기주식 보고서를 위한 의사결정은 부재하였습니다.

다행히 사외이사들의 기업가치제고계획 수립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며, 이를 뒷받침할 임직원 및 주주의 의지 역시 확고합니다. 다만 이사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할 사내경영진이 리더십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 24년 11월 이호진 전 회장은 태광산업과 경영고문계약을 맺었습니다. 경영고문이자 실질지분을 73%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이호진 전 회장은 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실제로, 성희용 대표이사의 사임 이후 새로운 대표이사들은 본인들이 아무런 결정권한이 없는 것처럼 이사회를 운영합니다.

또한 지난 3월 4일 언론을 통해 태광산업이 대표이사를 내정했다는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기주주총회에 이사후보를 추천하고, 대표이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이사회**는 완벽하게 패싱당했습니다.

당사와 사외이사회는 이러한 이사회 패싱문제를 해결하려면 **이호진 전 회장이** 등기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이사회에 복귀하여 **확고한 리더십을 가지고 투명하게 책임경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지난 3월 11일 **이호진 전 회장의 등기임원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소집을 태광산업에 청구**하였습니다.

이호진 전 회장은 공과 과가 뚜렷한 경영인입니다. 하지만 거대한 배가 선장 없이 항해할 수 없듯 태광산업이라는 거대한 배는 최대주주이자 핵심 이해관계인을 의사결정라인에서 잃고 지난 15년간 서서히 침몰해왔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선장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최대주주라는 핵심 이해관계인 없이는 난파선이 되는 암울한 미래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진을 보좌하고 감시할 **이사회**는 2대 주주인 당사와 함께 그 **기능과 투명성 및 독립성 면에서 눈부신 성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최대주주가 이사회에 직접 참가하여 투명하고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태광산업의 미래는 분명 밝을 것입니다.

곧 열릴 임시주주총회에서 많은 주주분들이 참석하시어 태광산업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만들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트러스트자산운용

